

한 전투적 평론가가 펼치는 비평의 새로운 단계

평론집 《불을 찾아서》 펴낸 김명인씨

“90년대 들어 ‘무계중심’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계몽성이라는 말은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물론 일상성과 내면성 탐구라는 문제는 우리 문학을 살찌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체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불을 찾아서’ 떠났던 비평계의 프로메테우스 김명인씨(42)가 돌아왔다. 최근 상재한 평론집 《불을 찾아서》(소명출판)는 1990년 《희망의 문학》(풀빛) 이후 10년만에 펴내는 그의 두번째 평론집이자 평단으로의 ‘복귀’ 선언이다. 그러나 그가 ‘불’을 찾은 것은 아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디에도 불은 없었다. 아니 어디든 불은 있었으나 나는 불씨를 얻어 품고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을 찾기 위해 ‘바람부는 광야로 나섰던’ 그의 ‘내적 망명’의 시간에 대한 기록들이기도 하다.

한 비평가가 지나온 정신의 궤적

긴 침묵을 깨고 평단으로 돌아온 그는 87년 이후 겪었던 정신적 위기, 삶 자체의 위기에 대한 답을 김수영과 임화로부터 얻었다고 말한다. 김수영에게서 자기 생각과 윤리 이외에는 판단할 준거점이 없는 한 인간이 ‘어떻게 온몸으로만 치열하게 살 수 있는가’를, 그리고 1930년대 중반의 임화를 통해서 ‘이념과 연대와 조직에서 비껴난 인간’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가를 배웠다.

“지난 7년은 자기확인 시간이었습니니다. 꿈쩍도 할 수 없는 기간이었죠. 그동안 인하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5년 반만에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수영과 임화를 공부했고, 그들과의 격렬한 만남을 통해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김수영에게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김명인씨

소명출판/A5신/272면/110,000원

말한다. 김수영 논문을 쓰고 나서 비로소 침잠상태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에 대한 판단의 ‘최종심급’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다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 비평가가 지나온 정신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92년에 쓴 〈불을 찾아서〉는 그 시작의 글. 소비에트 연방과 동독의 붕괴 이후 ‘기델 언덕’을 잃어버린 한 비평가의 고뇌와 지식인의 절망을 토로했다. 그 다음은 1995년에 쓴 〈세 개의 답변〉. 이 글에서 그는 “이제 민족문학은 끝이다. 깃발을 내림은 물론 문도 닫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민족문학에 작별을 고하는 한편, 양심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평의 출현’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비

평을 시작하며〉. 이 글은 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90년대 비평의 과편화 혹은 쇠말화 현상을 비판하는 동시에 “전체에서 개인까지, 역사에서 일상까지 비평에서 전체를 복원”하는, 정치성을 동반한 ‘계몽주의 비평’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다.

계몽비평의 복권을 위해

“90년대 들어 ‘무계중심’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계몽성이라는 말은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일상성과 내면성 탐구라는 문제는 우리 문학을 살찌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체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그는 1990년대의 ‘의도된 몽매주의’ 아래에서 는 작가와 비평가를 지성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정한 초발심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 즉, 세계와 인간에 대한 관점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얘기한다.

“솔직히 말해서 90년대는 ‘전체’를 바라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념적 준거가 붕괴되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매개가 사라졌습니다. 90년대 문학에서 ‘일상’을 넘어서는 매개를 찾기는 사실상 힘들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을 《불을 찾아서》라 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불, 혹은 매개를 찾는 그의 외로운 고투는 앞으로 활발히 펼쳐질 예정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그는 이번 평론집에서 그 각오를 다음처럼 밝혔다.

“더 이상 침묵 속에 방황은 하지 않겠다. 감히 말하건대 불을 찾아 나서는 나의 길은 이제 광야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향해 가파르게 열려 있다.” - 최갑수 기자

